

노년기 부모교육사 교과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A Preliminary Study on the Curriculum Development for Parent Educator of the Elderly

성신여대 가족문화소비자학과 박사과정

서울여대 강사 권 미 애*

호서대 노인복지학 전공

전임강사 전 혜 정

Dept. of Family Culture & Consumer Science, Sungshin Women's Univ.

Doctoral Course, Seoul Women's Univ.

Lecturer : Kwon, Mi-Ae

Dept. of Social Welfare for the Elderly, Hoseo Univ.

Full-time Lecturer : Jun, Hey-Jung

Abstract

Parent education has neglec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children after youth on their developmental stage and old parents, when the necessity for a guide about "parent education" provided for the parents in this period is not actually raised. Therefore, one should deeply understand each of the family members who change most clearly in a psychological and formal way on a family life cycle and reexamine the question of the roles they should play. I hope that this study will establish a desirable guide for senescent parent education history, develop a specific program by which to be active, and be used as basic data for having counselling ability.

주요어(Key Words) : 노년기 부모교육(parent education elderly), 부모교육사(parent educator)
성인자녀(adult children)

* 교신저자 : 권미애(E-mail : kmamaria@hanmail.net)

I. 서 론

부모교육의 시작은 인류역사의 시작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조직적인 부모교육의 역사는 사회변화에 따라 그 목적과 내용이 많이 달라졌다. 미국의 부모교육은 1700년경에 시작되었으며, 정부와 교회가 합동으로 성경에 기준을 둔 부모교육을 강조하였다. 1800년대 초에는 자기조력(self-help)단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1850년경에는 부모교육 방법에 관한 책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1900년대에는 아동에 관한 연구와 어머니에 관한 연구가 전국적으로, 특히 미국 동부 쪽에서 시작되었다. 그것은 지금 학교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부모교사모임(PTA)을 태동시켰다(송정아, 전영자, 김득성, 1998).

1927년 토론토에서 개최된 세계교육회의에서 가정과 학교의 국제연합회(International Faderation of Home and School)를 결성하였는데 이를 국제적인 부모교육기구의 효시로 보고 있다. 1945년대 미국의 부모교육은 사회적 가치와 가정형의 동향에 관심이 있었고, 부모와 가족 교육과 가정교육 생활을 중심으로 성인 교육제 내에서의 부모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행동기법의 부모역할과 같은 다수의 책이 출간되었고, 책임 있는 부모역할과 같은 시청각 자료를 포함한 부모훈련 프로그램 등도 나왔다.

초·중·고의 각급 학교에는 P. A. T 자모회 등이 있어 자모회의, 성인교육강좌, 가정방문, 방문교사, 성적통지, 수업참관 등 자녀 교육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성인교육을 평생학습이나 평생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등장하여 진행하였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정신분석, 사회심리, 성격이론, 행동주의 이론 등의 영향을 받은 전문가들이 부모교육 이론들을 실생활에 적용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며, 그와 함께 부모교육 강화 프로그램들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특히 아동의 인지적 발달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부모자녀 간의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관계형성으로 부모교육은 점점 발달되어 갔다. 우리나라의 부모교육은 근대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유교적인 윤리를 바탕으로 한 가문의 가족관계를 중시하는 교육이 실시되었다.

일반적으로 부모교육(parent education)의 표현은 부모참여(parent participation), 부모개입(parent involvement), 부모훈련(parent training), 부모역할(parenting) 등의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다. 우선 부모교육은 미국에서 1920년대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이다. Earhart(1980)는 부모교육이란 부모의 역할을 위한 정보와 지침을 마련해 주는 모든 형태의 활동이나 경험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Pherson & Robinson(1990)은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의 질을 개선하며, 부모와 자녀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의식적인 목적 지향적 학습활동이라고 정의하

였다. 연세대학교 부설 어린이 생활지도연구원(1991)은 부모교육을 부모가 유아의 발달 및 교육에 보다 효율적인 가치관, 지식, 태도, 행동, 교수방법을 갖고 부모로서의 역할 수행을 잘 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정의하였다(송정아, 전영자, 김득성, 1998, 재인용).

이와 같이 다양한 부모교육의 정의를 통해 부모교육은 부모로 하여금 자녀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정진시켜서 사고와 감정, 그리고 행동에 있어서 습관적인 방법을 돌이켜 검토해 보도록 함과 동시에 자녀를 양육하는 새로운 방법을 습득하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지고 있다.

부모-자녀관계는 개인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오래 지속되는 관계중의 하나로서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서로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관계는 또한 서로 다른 세대간의 관계로서 부모의 연령과 자녀의 성장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하는 관계이다(김순기, 1993, 재인용; 김재은, 1987).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에 접어들면서 자녀 자신이 겪는 변화도 물론 많이 발생하겠지만 그와 더불어 부모에게도 예전과는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

더욱이 최근에는 의학의 발달과 환경개선 등으로 인간의 사망률이 감소되고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성인자녀와 부모간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으며 그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자녀는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부모로부터 정서적·경제적·서비스적 측면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성장하게 된다. 그러나 자녀가 점차 성장하면서 부모에 대한 의존율은 낮아지는 반면 부모는 노쇠해짐에 따라 부모-자녀관계에서 지지의 제공과 수혜의 방향에 전환이 오게 된다(김순기, 2000).

부모역할은 그것이 '영원하다'는 것과 '취소할 수 없다'는 것에서 다른 역할들과는 다르다. 우리는 하나의 직업을 그만 두고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이혼을 할 수도 있고 친구와의 우정을 끝낼 수도 있다. 그러나 한 번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다시 부모가 되기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되는데 필요한 시간, 에너지, 감정 그리고 돈을 투자하여 많은 준비를 하는데 반해 다른 사람들은 부모역할을 하면서 그것을 배운다.

부모는 자녀의 심리적인 건강과 안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더 나아가, 부모행동의 영향은 아동기 동안뿐만 아니라 성인기 동안에도 나타난다. 각각 다른 발달과 성장에 놓여지게 되는 이 관계 내에서 부모는 노년기를 맞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 가족구조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노부모-성인자녀관계 변화의 배경을 이해하고 미래의 변화 경향을 예측하여 보다 적합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요구되어지는 부모역할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멕시코, 터키와 함께 OECD 국가 중 가장 젊은 인구구성을 갖고 있으나,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2000년 7.2%에서 2019년 14.4%, 2026년 20.0% 등이 되는 압축적 고령화

가 예상되고(장지연, 김정우, 2002), 2050년에는 일본을 제외하면 OECD 국가 중 가장 고령화된 인구구조(OECD, 2002)를 갖게 되며, 특히 2020년경부터는 고령화 속도는 매우 급속하여 그 파급 효과도 충격적인 형태로 제기될 것이다(허재준, 2002).

< 표 1> 한국의 평균수명과 노인인구 구성비의 추이

연도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평균수명	52.4	63.2	65.8	71.6	75.9	78.8	80.7	81.5
노인 인구비(65+,%)	2.9	3.2	3.8	5.1	7.3	10.7	15.1	23.1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01)

이와 같이 노인인구가 늘고, 평균수명이 길어지며,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은 가족구조 및 가족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우리나라도 낮은 출산율로 인해 세대간의 관계가 강해지고(최정혜, 1992) 수명연장으로 부모-자녀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으며 더 많은 세대와의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노부모-성인자녀관계는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성장 발달에 관한 이해와 관찰 없이 부모로부터의 일방적인 양육 방법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부모의 역할 변화와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장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의 단계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는 부모의 적합한 교육 목표와 방법들이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그에 반해 청소년기 이후인 성인자녀와 노부모에 관한 관계에 대해서는 소홀이 다루어져 왔으며, 이 시기에 노부모에게 부여되는 “부모교육”에 대한 지침의 필요성도 제기되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그렇지만 생활상의 심리적·형태적 변화의 모습이 가장 뚜렷해지는 가족생활의 발달단계상 노부모와 성인자녀 각각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이들이 수행해야 되는 역할상의 문제를 조명해야 한다. 증가하는 노부모의 세대와 독립적인 생활을 추구하는 성인자녀 세대의 욕구를 파악하여 노부모는 부모로서 제공할 수 있는 역할상의 부분과 의존성이 증가하는 부모에게 새롭게 적응해야만 하는 성인자녀 세대 양측면에 대해 현대사회는 적합한 노부모와 성인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 전문가의 양성과 지원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어진다.

II. 본론

1. 노년기 부모와 성인자녀의 특성

1) 노년기 부모의 특성

자녀가 모두 성장해서 집을 떠나고 두 부부만 남게 되는 시기를 ‘빈 둥지시기(empty nest stage)’라고 한다. 많은 부모들은 지금까지 자녀에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온갖 정성을 다했다. 특히, 자신의 삶을 오로지 자녀만을 위해 헌신해 온 어머니의 경우 빈 둥지시기에 도달했을 때 고독감을 견디지 못하고 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데, 이를 ‘빈 둥지 증후군(empty nest syndrome)’이라고 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성인자녀들이 독립을 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기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 성인자녀를 ‘패러사이트 싱글(Parasite Single; 기생독신자)’로 불려지고 있다. 이처럼 자식들이 기대한 대로 독립을 못해도 고통스럽지만,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와 빈 둥우리들을 채우고 있을 때도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은 이제 부모가 자식으로부터 부양을 받아야 할 시기에 오히려 자식이 부모에게 부양의 짐을 지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성인자녀가 성인기로의 전이를 정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을 경우 부모는 스스로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실패감을 경험하기도 한다(한경혜, 윤순덕, 2001). 정상적으로 자녀들이 출가하여 독립된 생활을 하더라도 이 시기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손주 돌보기, 가사 혹은 재정적인 도움을 주면서 빈번히 교제하는 경향이 있다. 이 때 부모-자녀간 교환의 불공평이나 불균형한 애착관계가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김애순, 2004).

그러나 빈 둥지시기에 자녀의 독립이 적절히 이뤄지고 두 노부부만 남게 될 경우,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과 Davidson & Moore(1996)에 의하면 적어도 이 시기는 경제적 부담이 줄고, 자유시간이 많아지며, 부부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짐으로써 결혼만족도가 높아지기도 하며, 대부분의 부부들에게 있어 자녀가 독립한 이후의 탈 부모기(post-parental stage)는 인생에서 매우 행복한 시기로 부부관계는 더 향상되고, 어떤 부부에게는 둘이 처음 만났을 때의 행복감과 만족감을 이 시기에 다시 느낌으로써 제2의 신혼기가 찾아온다고 한다.

반면, 결혼생활이 행복하지 못한 부부들의 경우에는 자녀가 떠나고 난 빈 둥지에서 둘 사이에 공통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서 공허감을 느낀다. 그들은 이제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도 끝났다고 믿는다. 즉, 자신의 인생에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무의미하다고 느낀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부모역할이 부부역할을 능가한다고 할 수 있다 (Keith & Schafer, 1991). 따라서 이 시기에 부모역할 외에 다른 어떤 의미 있는 역할을 찾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무미건조해진 결혼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보다 더 여유로워진 시간과 에너지, 경제적 자원을 부부관계에 투자해야 한다(Lamanna & Riedmann, 1991).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신체적 노화에 대한 현상의 적응이 필요해 지는 시기에 도달하게 되는데 생체조직이나 세포, 기관 등 전반적으로 쇠퇴나 무기력 등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며 이와 같이 늙어가는 현상을 '노화'라고 한다. 노화는 인간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과정의 한 부분으로 생물학적 변화를 포함한다. 이러한 변화는 불안, 욕구불만 및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반응을 가져오며, 동시에 타인으로 하여금 노년에 대한 고정관념을 증가시키고 노인의 행동과 적응력에 영향을 미친다. 만성적인 질병과 함께 인생의 덧없음을 경험하게 되며, 일상생활을 위해 다른 가족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이 경우 대부분의 여성이 조력자의 역할을 하게 되며, 자녀들의 출가로 두 부부만 남은 경우 결혼만족도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배우자에 대해 동료나 지지자로 인식하기 시작한다.

일과 가족생활의 조화를 양립할 수 있는 측면으로 살펴보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은퇴는 개인이 지금까지 수행해 온 지위와 역할의 상실과 함께 새로운 역할관계를 부여하며, 그 새로운 역할관계는 가족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어떤 일로부터 떠나게 되는 것은 신체적, 심리적 노화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은퇴가 갖는 의미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즉 현대 사회에서 노인은 은퇴로 인해 역할 부재의식을 갖게 되고 역할의 상실은 단순한 노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노인과 관련되는 사회, 가족, 집단 과도 문제로 발전하게 된다. 마치 은퇴가 하나의 발달과정으로서 인생주기에 겪어야 되는 통과례의 한 사건으로 인식되어 은퇴 후 새로운 역할에의 적응이 순조로이 이루어진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정현숙, 유계숙, 2001).

2) 성인자녀의 특성

성년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으로 전시간제의 직업을 갖게 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시기이다. 그러나 직업발달은 성년기 훨씬 이전부터 인간발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동은 커서 무엇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 생각하며, 그러한 생각이 종종 공상에 불과하더라도 여러 가지 직업이 아동의 꿈속에서 그려지기 시작한다. 직업은 개인의 정체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회생활의 핵심요소로 사회적 신분을 자리매김해 준다. 직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므로 직업은 성인들의 사회활동의 근원이 되며, 자신이 하는 일의 종류에 따라 사회적 신분이 정해지기도 한다. 직업은 또한

개인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친다.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고, 직업에서 성공을 이루는 것은 개인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 및 생활만족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따라서 성인기의 직업은 여러 가지 면에서 개인의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정옥분, 2004).

성인초기에는 신체적·생리적·심리적 에너지 수준이 최고 수준에 있어 절정에 달하게 되는 시기로 자신이 설정한 인생계획에 따라 꿈을 실현하고 성취의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 전력투구를 하는 시기이다. 즉 결혼을 통해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직업생활을 하는 것이 주요한 발달적 과업이다. 30대 초반에는 자신의 인생의 방향과 목표, 생활 등을 재평가해보는 ‘30대 전환기’가 오게 되는데, 이때 자신의 인생구조가 결함이 있다고 발견되면 수정해서 새로운 전환을 시도하게 된다. 30대 후반은 성인초기의 절정기이다. 30대 전환기를 지난 후 보다 안정된 인생구조를 형성하여 가정과 직장, 그리고 자신이 관심과 흥미를 갖고 있는 분야에 보다 깊이 개입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을 투자한다.

Erikson의 발달단계 측면에서 보면 ‘친밀감 vs 고립감’은 성인초기에 해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혼과 취업을 통해 새로운 가족관계와 대인관계가 형성됨에 따라 인간관계의 폭이 확장되고 새로운 유대 관계를 맺을 필요성이 생긴다. 따라서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발달 과제는 친밀감의 형성이며, 여기서 친밀감이란 자신의 무엇을 상실한다는 두려움 없이 자신의 정체감을 누군가의 정체감과 연합시키는 능력이며, 성적인 것 이상의 넓은 의미에서의 타인에 대한 관여이다. 이러한 친밀감은 성공적인 결혼을 성취시키는 필수요건이며, 통합된 정체감을 성취한 다음에야 가능하다. 이러한 친밀감을 발달시키지 못하면 고립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런 경우 공허감, 소외감, 자기도취에 빠지며 피상적인 인간관계를 추구하게 된다.

성인중기 이후에는 생물학적으로 신체적·생리적 노화가 시작되고 성적 재생산 능력이 상실되는 시기이며, 직업적 성취와 아울러 사회적 지도세력으로서의 책임과 영향력이 절정에 달하게 되는 시기이다. 그리고 가족적으로는 부부관계 뿐 아니라 자녀들과 새로운 유대관계를 맺어 나가는 동시에 부모의 복리에도 책임과 관심을 기울이게 중심적인 역할로 등장하는 시기이다. 이와 같이 중년기는 직업세계에서의 막중한 책임 뿐 아니라, 자녀양육과 부모 봉양의 이중적인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샌드위치 세대’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이 시기의 과제는 생성감과 침체감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생성감이란 생산성, 창조성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즉 생성이란 생성적인 목적을 위해 자신의 내적 자원을 좀더 충분히 끌어내는 것, 사회와 다음세대를 향한 개인의 책임과 의무를 양면 감정 없이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자기세대를 대처한 후 세대에 대한 배려와 관심과 지도하는 미덕을 터득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성감은 중년의 전환기에 중년기 위기를 잘 극복한 결과로 생길 수 있다.

2. 노년기 부모와 성인자녀 관계

1) 부모-자녀관계의 전환

부모-자녀관계에서의 긴장은 전 가족생활주기 상에서 일어난다. 이러한 긴장은 각 세대의 자율성과 의존성에 대한 욕구와 분리와 연결에 대한 욕구간의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개별화 과정은 부모의 권위에 의한 압력과 아동기와 청소년기 및 청년기 자녀들의 욕구에 대한 끊임없는 재협상 과정이다. 아동기의 절대적인 의존관계에서 자녀들이 청소년이 되고 성년이 되면서 상호의존적인 형태로 변화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녀들은 친밀감과 성숙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게 된다. 성공적인 개별화과정을 통해 부모와 자녀는 진정한 상호신뢰를 발전시킬 수 있다(Anderson & Sabatelli, 1999). 부모-자녀관계의 역할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와 같이 부모와 중년기 자녀들 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노년기에 이르면 부모-자녀관계에서 노화과정에 있는 부모의 의존성과 자녀들의 부양에 대한 부담이 증가한다. 자녀들은 이전의 관계에서와는 달리 보호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노년기 부모가 자신의 의존성을 받아들이고 자녀들이 그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녀들은 부모들에 대한 이미지를 받아들이고 부모님의 삶에서 변화되고 있는 역할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러한 전환과정에서의 협상에 대한 만족정도에 따라 앞으로의 관계에서 이루게 될 친밀감이나 상호관계의 수준이 결정된다.

노년기의 부모자녀 관계는 어느 한쪽이 원조의 제공자 또는 수혜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여러 가지 면에서 상호호혜적인 관계이다. 우리나라 노부모와 성인자녀관계에서 대부분의 노부모들은 자녀에게 물질적인 혜택을 주고, 자녀에게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정서적으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주고자 한다. 반면, 자신의 노후부양을 자녀에게 기대한다. 우리나라 노인들이 자녀에게 기대하는 도움은 잦은 방문과 대화, 정신적·경제적 도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태현, 1994).

노인은 가족 내에서 연장자로서 그들의 삶을 통해 축적해 온 경험과 지혜를 자녀에게 전달하고, 자신이 미래 세대에 필요한 인물이라고 느끼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다(Galvin & Brommel, 1982). 그러나 오늘날에는 사회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노인들의 경험이 젊은 세대를 지도하기에 적합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자녀가 일찍이 부모의 보살핌을 받았듯이, 노인이 자녀로부터 보살핌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전통사회에서 보편적이었던 보살핌의 순환과정 역시 순조롭지 못하다. 중년기 자녀가 노부모를 보살펴야 할 때가 되면, 이들은 애정과 분노, 부모에 대한 의무와 자신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책임, 그리고 효도하고 싶다는 생각과 자신의 현재 생활방식을 바꾸고 싶지 않다는 생각 사이에서 심한 갈등을 겪는다.

흔히 노년기의 사고(四苦)를 가난, 질병, 고독, 역할상실이라고 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은 이러한 고통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노인들이 자녀에게 의존하는 주된 이유는 건강과 경제적 취약성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이들이 가장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부분은 경제적인 지원보다는 잦은 방문이나 정서적 지원이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해서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주된 의존대상이 가족이며, 사회적 지원보다는 자녀에게 대한 의존도가 높고, 가족원으로부터의 지원은 노년기의 생활만족도의 중요한 근원이 된다.

노부모와 성인자녀의 관계는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애정적인 유대감에서 비롯될 때 만족스러운 것이다(Cantor, 1983; Robinson & Thurnher, 1981). 그렇지만 노부모를 부양하는 중년자녀에게는 경제적·정신적인 부담은 또 다른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의 한 양상으로도 비춰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노인들이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한결같이 가족에게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부모-자녀 간 가족간의 갈등의 소지는 더욱 확대되어 질 수 밖에 없으며, 노부모의 삶의 질을 동시에 떨어뜨리는 경우가 야기된다. 따라서 이들의 관계를 새롭게 재 정의하고, 각자의 역할 변화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이 노부모와 함께 성인자녀에게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2) 조부모 역할

고독감, 소외감을 포함한 노년기의 전반적인 심리적 적응 문제는 노년기의 역할상실 및 변화와 깊은 관계가 있다. 특히 가족 내에서 역할변화도 인생의 커다란 분기점이 되고 있다. 경제적 주도권은 자녀세대에게 이양되고, 오직 상징적인 집안 어른의 지위와 조부모로서의 역할에 만족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조부모가 되는 경험은 좌절감에서부터 자부심과 놀라움까지 다양하다. Neugarten과 Weinstein(1964)에 의하면, 손자녀를 통해 젊음과 정열을 재경험하고 생의 연속성을 느끼게 되며,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성과 성취감을 재경험하고, 손자녀의 성장과 사회적 성취를 통하여 대리만족을 얻게 된다고 한다. 이에 비해 손자녀는 조부모와의 관계를 통하여 문화적 연속성을 획득할 수 있게 되며, 노년기에 직면할 심리사회적 긴장을 사전에 경험함으로써 전 생애에 걸친 건전한 심리적 발달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가족의 입장에서는 조부모-손자녀 관계를 통하여 가족의 결속력을 증진시키고 가족역사를 계승하며, 가족에 대한 소속감을 강화시켜 가족성원의 정체감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홍숙자, 2001). 하지만 성인자녀와의 양육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하여 세대간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또한 손자녀가 조부모

를 싫어하거나 노인 자신이 손자녀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인식 때문에 자기 무용감과 소원한 관계를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손 자녀-조부모관계는 소원한 역할, 적극적 역할, 동료적 역할과 대리부모역할 등 네 가지 유형이 있다(Cherlin & Furstenberg, 1985; Gratton & Harber, 1996).

소원한 역할(remote grandparent)의 조부모는 전통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많은 경우 가족의 부를 소유하고, 자녀들의 존경을 받으며 가부장적인 권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재산이 없거나 가문을 이어가지 못할 때는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

적극적인 역할(involved grandparent)의 조부모는 손 자녀들의 일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유형으로 대부분 손자녀의 집근처에서 거주하며, 거의 매일 이들을 본다. 이들은 노후의 빈 등우리 증후군의 외로움이나 혼자남아 겪게 되는 외로움을 손 자녀를 통해 해소한다.

동료적인 역할(companionate grandparent)의 조부모는 다른 가구를 형성해 살면서 부모세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하고 사는 유형이다. 세대간의 관계는 상호 협의하여 자유롭게 결정하며, 손 자녀 방문도 사전에 통보한다. 비록 손 자녀들을 버릇없게 만든다는 비난을 듣는 경우도 있으나, 손 자녀를 훈육하지는 않는다. 현대에 와서는 조부모들이 여러 이유에서 동료적인 역할을 선호한다고 한다. 현대에 와서는 조부모들이 여러 이유에서 동료적인 역할을 선호한다고 한다. 우선 지리적으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멀리 떨어져 있어 방문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는 동거할 때만큼 친밀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조부모들이 일과 여가활동 및 지역 사회와의 유대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서 손 자녀가 중심이 아니며, 이들에게 투자할 시간과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부모와 자녀관계도 점차 평등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노인세대가 자동적으로 행사했던 많은 권력 또한 감소하였다. 그 결과 자녀양육에 대한 조부모들의 제언이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서로 간섭을 하지 않고 조화를 유지해 나간다.

대리부모 역할(surrogate grandparent)은 손자녀의 부모가 취업하였거나, 질병이나 이혼 등으로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어난다. 우리나라에서는 출산 후 친정어머니들이 산후조리기간 동안 손자녀의 대리모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로 인해 특히 조모들이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조부모들의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조부모의 다양한 역할유형들이 적절히 이뤄지지 못하고 위축될 경우 노인들은 가정에서 조차 소외감을 경험하게 되고 손자녀들은 가족의 역사나 문화에 대한 경험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며, 가족결속력이 저하되어 빈껍질 가족(empty shell)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소원해 질 수 있는 세대 공동의 활동이나 대화의 기회를 마련하는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방법들이 활성화될 때 건강하고 바람직한 세대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3. 노부모와 성인자녀 관계의 재정립 방향

1) 노부모의 입장

노년기는 신체, 정신적 기능이 저하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노인은 점차 사회활동과 주변에 대한 관심은 감퇴하고 안정을 추구하게 된다. 생활 범위가 좁혀진 노인은 그들의 관심과 접촉 영역을 가족에게로 옮겨간다. 즉 노년기에 가까워질수록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얻게 되므로 가족은 노인에게 가장 큰 의지의 대상이 된다.

대부분의 노인에게 있어서 자녀들은 그들의 관심 대상이 된다. 노년기가 생활범위의 축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계속적인 혜택과 도움을 주어 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관심이 이동된다고 할 수 있다. 가족 내에서 노부모-성인자녀 관계는 사회적으로 허용된 상호 의무와 가족 결속에 기초를 두고 있다. 가족의 의무는 즉각적으로 서로 주고받기 보다는 연속적인 것으로 부모는 자녀를 돌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자녀들은 부모가 베푼 은혜에 책무감을 가지게 된다(교육부, 1998).

노부모는 세대간 결속력을 성인자녀 쪽보다 훨씬 높게 가지고 있으며,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일방적인 사랑의 방향과 관계된다. 노부모는 성인자녀와의 관계 재정립에서 크게 두 가지 방향을 가질 수 있는데, 첫째는 자립형으로 성인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하는 형태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경제적 준비가 선행되어야 하며, 노부모가 가장 갈망하는 정서적 욕구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재형성하거나 친구 및 이웃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가 주관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신을 개발하고 스스로 자신을 존중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길러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여야 한다.

둘째는 의존형으로 노부모는 주로 경제력이 없거나 건강이 쇠약하여 성인자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형태인데, 가족적 차원에서 계속될 전망이다(김태현, 최정혜, 1991; 성규탁, 1991; 홍숙자, 2001)이므로 노부모는 부양자인 성인자녀의 입장을 이해하여야 한다. 즉 자신을 부양하는 성인자녀가 아래로는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입장이므로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위치임을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노부모는 자신을 부양하는 성인자녀가 이미 한 가정의 가장임을 고려하여 계속 훈계하거나 고집대로 관철하려는 입장을 고쳐 성인자녀와의 원만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변화를 경험해야 하는 노부모들을 위한 새로운 지식, 기술, 정보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학습활동이 절실히 요구된다. 기존에 지니고 있는 노인의 가

치관을 수정하여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며, 보다 나은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인 교육프로그램에 참가 요구된다. 다양한 노인들의 집단을 세분화하여 노년기 발달과업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는 평생 교육적 접근의 부모교육 또는 노인교육의 의미가 조화롭게 접목되어야 할 것이다.

2) 성인자녀의 입장

우리나라의 노부모 부양은 전통적으로 성인자녀의 책임이며, 특히 장남 및 아들의 책임이라는 의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규범 의식은 변화하여 현재는 자녀 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강하며, 성인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관계 재정립 방향 역시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는 ‘동거 부양형’으로 성인자녀가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형태이다. 이 경우 성인자녀는 노부모의 경제적·정서적 부양을 함께 담당하는 입장이므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노부모에 대한 단순한 부양책임보다는 노인들이 처한 오늘이 사회적 배경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 노부모 부양에 대해 스스로 긍지를 갖도록 해야 한다. 또한 노년기에 대한 이해로서 부모가 단순히 늙었다는 의미가 아닌 인생을 마무리하는 성숙한 시기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고 노부모와의 관계증진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음을 입증한 연구(홍숙자, 2001)가 있어 그 활성화를 기대한다.

둘째, ‘별거 부양형’으로 노부모와 떨어져 살면서 경제적 부양만을 담당하는 형태이다. 이 경우는 상호접촉이 소원해지기 쉽기 때문에 노부모가 소외감을 느끼기 쉬우며 세대간 결속력이 약화되기 쉽다. 성인자녀는 노부모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경제적인 부양보다는 정서적인 상호작용임을 인식하여 주어진 상황에서 가능한 부모님의 소외감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정서적인 배려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한다.

노년기의 부모와 성인자녀 사이의 동거유형은 양쪽 모두에게 새로운 역할의 배분과 문제해결 방식을 요구하게 된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노부모가 아들 특히 장남과 동거하는 것이 당연시되어 왔으며, 그 자체가 노인의 안녕감을 증진시킨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자식과의 동거가 노인들의 삶의 질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원영희, 1995), 홀로 된 노인들에게만 고독감을 저하시킨다는 주장도 있다(Taylor & Chatter, 1991). 이에 따라 최근에는 차츰 노부부 단독가구나 독신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것은 노인들의 독립심과 경제력 향상에도 기인하지만, 한편으론 노부모들이 자식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정서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식과의 동거나 별거가 노부모의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그 동기가 자발적인가 비자발적인가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김경혜(1998)에 의하면, 노인들이 자발적

으로 독립가구를 형성하는 데는 경제적, 사회적 자원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개인수입, 공적 지원, 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지망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독립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삶의 질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따로 살고 싶지만 자원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동거하거나, 몸이 불편해도 함께 살 자녀가 없어서 따로 살 경우에는 삶의 질이 낮아 질 수도 있다(김애순, 2004).

흔히 우리는 결혼한 자녀와는 “국이 식지 않을 거리”에 사는 것이 좋다는 말을 한다. 이는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효(孝)의 개념이 전승되어 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 부모-자녀간 지원교환형태를 분석한 김정석과 김익기(2000)에 의하면, 부모-자녀간에 서로 주고받는 부모들이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으며, 주지도 받지도 않은 부모들을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이것은 부모-자녀간에 적절한 거리감을 두고 자주 왕래하면서 상호간 교환의 공평성을 유지할 수 있을 때, 그 관계가 가장 원만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대체로 부모-자녀간의 지원은 도구적인 지원과 정서적 지원으로 분리해서 볼 수 있다. 우선 도구적 지원(생활비, 용돈, 일손 도움 등)은 주로 아들이, 그리고 정서적 지원(상담, 말벗 등)은 딸과 교환하는 경향이 있어왔다. 즉 아들은 부모와 동거하거나 가까운 거리에 살면서 경제적 도움을 주고, 딸은 비록 물리적으로 멀리 있더라도 정서적 유대를 맺고 있다(윤진, 1985). 흔히 노부모들에겐 단순한 물질적 도움보다 이런 정서적 지원이 더욱 즐거움을 주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성들의 경제력 성장으로 딸들의 도구적 지원 역시 증가하고 있다(김애순, 2004).

4. 노년기 부모교육

1) 노년기 부모-성인기 자녀의 특성 이해

성공적인 부모역할을 위해 자녀의 발달과업을 이해해야 하며, 현대 사회에서의 길어진 노년기에 나타나는 부모-자녀관계를 다루어 성인 자녀와 노부모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과 문제를 조명해야 한다.

현대 사회 변화에서 부모의 역할을 Toffler는 “일의 복잡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도 부모의 자녀양육만은 아마추어로 남아 있는 유일한 분야이다.” 라고 지적한바 있다. 부모의 역할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녀의 성장·발달과정과 깊은 상관이 있다.

노부모와 성인 자녀관계에서는 서로에 관해서 잘 알고 있고, 서로 깊이 이해하고 염려해 준다

고 하더라도 진실로 공감하기 어려우며(Arling, 1976), 성인 자녀들은 부모보다는 배우자나 자식들과 더 밀접함을 느끼고 있어(Seelbach, 1978) 이러한 세대 차이는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게 된다(신일진, 김태현, 1991). 특히 한국 사회에서 노인의 가치 체계는 전통사회에서 사회화 과정을 거쳐 전통적 가치가 내면화되어 급변하는 산업화, 도시화 과정 속에서 현대식 교육을 받고 현대적 가치관을 체득해 온 젊은 세대와는 그 가치관이나 생활의 여러 측면들에서의 차이로 갈등이 클 것이다(조경자, 한동희, 조은희, 1996).

노부모-성인자녀관계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세대차와 갈등으로 노부모는 가족 내에서 연장자로서 그들의 삶을 통해 축적해 온 지혜를 자녀에게 전달하고, 자신이 다가오는 세대에 필요한 인물이라고 느끼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으며, 이런 욕구는 자녀가 길잡이가 될 만한 정보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줄 때 충족된다. 즉 부모의 가치나 관심사가 자녀에게 전달되고 상호 이해가 될 때 노년기의 만족도는 높아지며 그렇지 못할 경우 갈등을 발생된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노부모의 의존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인자녀와의 문제인데, 이것은 노화로 인한 부모 세대의 변화를 성인자녀가 이해하고 경험해야 하는 부분이다. 의존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유아기로부터 비교적 독립적인 성인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의존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은 결코 병리적인 것이 아니며 생활주기상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 노화로 인하여 의존-독립의 균형이 성인자녀에게로 기울게 되면서 역할 전이의 갈등을 느끼게 된다. 취약해진 건강과 경제적인 문제는 그동안 물질적 원조의 제공자로서, 권위의 상징으로서의 역할에 익숙해 왔던 노부모에게도 적응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노부모와 성인자녀 간의 발생하는 세대차와 의존성의 문제는 발달과정상의 한 부분으로 필연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상호간에 필연적으로 오는 차이를 상호 이해로써 인정하고 협상과 타협으로 문제에 직면해 나갈 때 노년기 세대간의 차이는 원만히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김정옥, 2004).

2) 부모의 권위

포스트모던 사회에서는 변화가 너무 급격해서 나이는 사람의 지식과 기술은 흔히 시대에 뒤떨어지며 실용적인 가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젊은이들은 부모나 기존 권위에 대해 존경과 공경심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게 되며, 그들은 새로운 지식, 기술, 가치를 습득하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는다. 별로 실용성 없는 과거의 교훈이나 가치를 배우기 위한 시간과 여력이 없으며, 필요성 또한 느끼지 못한다. 최근의 연구 결과들에서는 아동들조차 권위나 규칙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구별하여 받아들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어린 아이들 조

차도 어떤 규칙이 도덕과 관련된 것인지, 인습과 관련된 것인지에 대한 개념적 구별이 가능한데 성인 자녀의 경우에는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따라서 모든 영역을 부모의 생각대로 강요하면 자녀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순종하기 보다는 반발하거나 부모들의 생각을 무시하게 된다. 인습적 문제와 개인적 문제를 자녀에게 말기고 최소한의 권위만을 행사하도록 노력하되, 도덕적 문제에 관해서는 부모로서의 권위를 확실하게 행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들은 도덕, 인습, 개인적 문제들을 구분하는 일이 중요하며, 사회적 행동이 한 영역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다각적인 관점의 사고가 요구된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대해 대화를 가지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부모들은 성인이 된 자녀들을 독립된 개체로서 인정하고 자녀의 모든 행동이 부모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를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부모세대와 자녀세대는 각기 다른 환경과 문화 속에서 성장해 왔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서로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3) 적절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의사소통은 다른 발달단계상에 놓인 관계들 보다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다.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부모-자녀관계는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라 변화가 되어지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유아기의 이미지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부모에게 자녀의 이미지는 항상 보살핌과 지도를 필요로 하는 사랑스럽고, 어리고, 부족한 존재이다. 반면에 자녀의 입장은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부모에게 의존했는가의 기억이 있다하더라도 자신의 지적, 사회적, 신체적 능력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부모의 지식, 가치관, 사회적 능력조차 자신의 인생에 관계가 없는 것 같이 생각하기 쉬워진다. 오히려 부모의 자상한 보살핌조차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느껴지며 부담스러워 한다. 이런 부분을 볼 때, 많은 부모들은 성장한 자녀를 독립된 개체라고 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부모 자신은 스스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낡은 것으로 보고 시대의 변화를 쫓아 가기위해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더욱더 자녀와 이워지는 의사소통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주로 부모들은 비난, 설교, 명령, 경고, 협박, 욕설, 조롱, 창피, 분노 등의 다양한 ‘결립돌’의 언어를 사용하여 대화를 하기 때문에 중단이 되거나 언성을 높리게 된다. 그러므로 부모의 입장에서는 성인이 된 자녀를 더욱 존중하며, 부모의 권위만을 강요하거나 내세우기보다 이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4) 사생활에 대한 권리의 발달

결혼은 개인과 개인의 결합이 아니라 가족과 가족의 결합인 사회에서는 부모와 자녀간의 사생

활권에 대한 인식이 매우 어렵다. 그러나 성공적인 중년기의 적응을 위해서는 개별화가 필수적이다. 개별화는 중년기 가족의 가족갈등을 예방하는데도 가장 중요한 요수 중의 하나이다.

성인자녀가 부모가 함께 거주할 경우 사생활에 대한 이해는 더욱더 중요하다. 현대의 다양한 고부관계도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간의 분리와 의존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 결과이다. 성장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간섭으로 비추어질 수 있으며, 지나친 자녀와의 밀착이 부부간의 갈등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가 자녀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정도로 자녀와 동료적인 밀착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삼각화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건강한 개인과 개인간의 발달을 위해서는 세대간의 명확한 경계가 요구되므로 부모와 자녀세대의 사생활권과 각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5) 경계설정을 위한 가족외적인 책략

성인자녀의 원 가족 밖에서의 역할과 지위가 성인자녀와 부모관계에서 인정되는 경계의 정도를 결정한다. 원 가족 밖에서의 역할변화는 세대간의 경계를 변화시키며, 이를 통해 상호존중감과 이해심 및 다른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이끈다. 부모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자식으로서 부모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부모를 부모로서가 아니라 개인으로써 보기 시작한다고 한다. Nydegger(1991)는 이러한 능력이 자녀로서의 성숙을 위한 조건이라고 한다. 또 한 가지 자녀로서의 성숙을 위한 조건은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이유'로 자녀들이 자신과 그들 부모에 대해 더 객관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부모의 성숙도 요구된다. 부모는 자녀들의 이유를 촉진해 주고, 부모들 스스로도 자녀로부터 독립하여야 하며, 부모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도 새로운 정의를 내려야 한다. 또한 부모들은 자녀들과 밀접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녀들의 발달을 촉진하길 원한다면 자녀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독특한 삶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외적인 사회적 지위나 역할의 변화에 반응하여 세대간의 경계도 변화되며, 부모-자녀간의 경계도 약화된다. 자녀가 성인으로서의 역할과 관련된 것을 잃게 되면 성인자녀가 부모에게 가지고 있었던 권리는 위협받는다. 가족 밖에서의 역할과 지위는 가족 내에서의 역할에 대한 재조정이 요구된다(정현숙, 유계숙, 2001).

III. 결 론

노부모와 성인자녀 관계에 초점을 맞춘 선행연구 결과들을 근거로 살펴보면, 서구 가족의 경우 구조적으로 성인자녀는 노부모와 별거를 하고, 독립된 각자의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하나의 경향으로 나타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와 반대의 구조를 갖는다. 성인초기까지도 경제적·정신적인 의존성을 지닌 채 성인기 후기를 맞이하며, 성인으로서의 발달과업을 수행해 나간다(김순기, 2000).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상대적으로 자녀수가 감소함에 따라 노부모와 성인자녀의 관계는 더욱 밀접해 지고 있다. 전통적인 사회에서 성인자녀는 노부모 부양에 있어서 경제적·신체적 자원의 공급자이며, 사회적 통합의 기초적 배경이었으나 현대 가족에서 자녀의 사회화의 방향은 더 우선적인 가치를 두게 되어 노인 부양 문제가 심각해 질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가 높으나 실제로는 다수의 성인자녀-노부모는 상호지원적인 관계를 전 생애에 걸쳐 유지한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더욱 다양해지는 성인자녀-부모관계의 역동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모자녀관계의 어떤 한 측면만을 보기보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고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부모-자녀관계는 중요한 환경을 제공하며, 한 번 성립되면 일생동안 끊을 수 없는 관계로서 상호간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관점에서 어떤 인간관계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부모 됨(parenthood)의 동기는 본능이 아니며 획득된 동기로서 일반적으로 부모역할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심리적 과정이며, 숙명적 동기, 가계계승의 동기, 이타 주의적 동기, 자기도취적 동기, 사회적 지위 획득 동기, 도구적 동기로 나눌 수 있다.

현대사회의 변화는 부모역할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과거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전수되는 전통적인 양육 가치관과 가족의 양육태도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 재고하게 된다. 가족이 절대적으로 자녀양육의 역할을 하던 과거에 비하면 최근의 부모역할은 상당히 축소되는 경향이다.

오늘날의 복잡한 사회에서, 사회화의 과정을 통한 부모들의 자녀양육태도에 대한 성공을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규정들은 없다. 자녀양육의 방대한 양의 정보에 직면한 부모들은 효율적인 자녀양육의 핵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모로서 성공하기 위하여, 각 개인들은 그들 자신의 명확한 인식뿐만 아니라 아이의 정체성의 확인과 상호관계에 대한 인식도 가져야만 한다.

다양한 가족관계 중에서도 부모-자녀관계는 일생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는 관계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부모의 연령변화와 자녀의 성장에 따라 변화, 발전하는 역동적 관계이며 각 세대가

경험하는 배경의 차이로 급속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현대 사회에 많은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조율하고 평생교육 또는 재사회화의 의미로서 부모교육은 인생의 각 발달단계상 적절하게 이뤄져야 하는 전문적인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앞으로 부모교육사의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있어 발달상의 여러 단계의 특성과 과업, 그에 따른 부모의 역할수행도 물론 중요하며 특히, 자녀의 의존성이 감소되고, 독립성이 추구되는 노부모와 성인의 관계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각각의 특성에 맞는 욕구를 잘 파악할 수 있을 때 바람직한 노부모기의 부모교육사로 활동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프로그램개발 또는 상담까지도 가능해 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부모교육에서 주로 실행되었던 부모 효율성 훈련(PET;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효율적인 부모역할 수행을 위한 체계적 훈련(STEP; Systematic Training for Effective Parenting), 적극적 부모역할 훈련(APT; Active Parent Training)과 같은 교육이론 및 프로그램들을 모델로 하여 노년기의 특성에 맞게 응용하여 길어진 부모기와 자녀와의 관계를 향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1998). 평생학습사회와 노인교육.
- 김경혜(1998). 노인들의 동거형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 거주노인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18(1), 107-122.
- 김순기(1993). 기혼여성의 시어머니 및 친정어머니와의 상호지지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순기(2000). 성인자녀-부모관계의 결속과 갈등에 관한 이론적 고찰-성인자녀-부모관계의 결속과 갈등에 관한 연구의 이론적 고찰. **경희대학교 교황논집**, 27, 65-76.
- 김애순(2004). 성인발달과 생애설계. 시그마프레스(주).
- 김정석, 김익기(2000). 세대간 지원교환의 형태와 노인들의 생활만족도. **한국노년학**, 20(2), 155-168.
- 김정옥(2004). 새로 보는 결혼과 가족. 신정.
- 김재은(1987). 심리조사 활용의 논리와 인간화. **교육평가연구**, 2(2), 163-175.
- 김태현(1994). 노년학. 교문사.
- 김태현, 최정혜(1991). 부양을 중심으로 한 노부모-성인자녀 관계 연구에 대한 고찰.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연구소, 생활문화연구**, 5, 161-177.
- 성규탁(1991). 한국인의 부모부양을 위한 의지와 관행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1(2), 251-273.
- 신일진, 김태현(1991).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과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3(1), 27-44.
- 송정아, 전영자, 김득성(1998). 가족생활교육론. 교문사.
- 원영희(1995). 동·별거형태가 한국 노인의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15(2), 97-116.
- 윤진(1985). 성인·노인 심리학. 중앙적성출판사.
- 장지연, 김정우(2002). 취약계층에 대한 교양보조금제도의 효과 및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 정옥분(2004). 발달심리학-전생애 인간발달. 학지사.
- 정현숙, 유계숙(2001). 가족관계. 학지사.
- 조경자, 한동희, 조은희(1996). 노부모와 기혼자녀의 동거관계에서 발생하는 세대간 갈등과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6).
- 최정혜(1992). 노인들의 성인자녀와의 갈등에 대한 도시·농촌 비료연구. **진주교육대학교 논문집**(36), 289-311.
- 통계청(2001). 장래인구추계.
- 한경혜, 윤순덕(2001). 자녀와의 동·별거가 농촌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회**, 12(1), 67-91.
- 허재준(2002). 고령화 사회의 인력활용 증진방안. **국토연구원**, 52-61.
- 홍숙자(2001). 노년학개론. 하우.
- Anderson, S., & Sabatelli, R.(1999). Family interaction: A multi-generational

- developmental perspective*. Boston: Allyn and Bacon.
- Arling, G.(1976). The elderly widow and her family, neighborhood and friend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38, 357-768.
- Cantor, M.H.(1983). Strain among caregiver : A Study of experience in the United States. *The Gerontologist*, 23, 597-604.
- Cherlin, A., & Furstenberg, F.(1985). *The new American grandparent: A place in the family, a life apart*. New York: Basic Books.
- Davidson, J, K, & Moore, N, B.(1996). *Marriage And Family*. Allyn And Bacon A Simon & Schyster Company.
- Galvin, K. M., & Brommel, B. J.(1982). *Family communication*. Scott: Foresman.
- Gratton, B., & Haber, C.(1996). Three phases in the history of American grandparents: Authority, burden, companion. *Generations*, 20, 7-12.
- Keith, P, M., & Schafer, R, B.(1991). *Relational and well-being over the life stage*. New York: Praeger.
- Lamanna, M. A., & Riedmann, A.(1991). *Marriages and Families: Making choices and facing change*(4th ed.). Belmont, CA: Wadsworth.
- Neugarten, B., & Weinstein, K.(1964). The Changing American Grand[par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26, 199-204.
- Nydegger, C. N. (1991). The development of paternal and filial maturity. In K. Pillemer & K. McCartney(Eds.), *Parent-child relations throughout life*(pp. 93-112).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Patterson, Gerald. R.(1976). *Living with children: New methods for parents and teachers*. Champaign, Ill. : Research Press: Illinois
- Robinson & Thurnher(1981). Taking care of aged patents : A Family cycle transition. *The Gerontologist*, 19(6), 586-593.
- Seelbach, W. C.(1978). Correlates of aged parents filial responsibility expectation and realizations. *The Family coordinator*, 27(4), 341-350.
- Taylor, R. J., & Chatters, L. M.(1991). Extended family networks older black adults. *Journal of Gerontology*, 46(4), 210-217.